

응급구조과 학생의 죽음에 관한 의식

The Death Orientation of Paramedic Student

이정은* · 고훈연*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죽음이란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로서 생(生)의 종말을 말한다. 고등동물에 한정하면 그 개체를 구성하는 전조직(全組織) 세포의 생활기능의 정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죽음의 종말은 심장고동과 호흡운동의 정지이다¹⁾.

첨단과학과 의학기술 및 경제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인간이 나타내는 죽음의 의미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경험에 의해 달라지며, 죽음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와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고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²⁾. 또한 죽음은 삶의 과정 속의 한 부분으로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고, 개인의 가치관, 철학 및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³⁾. 죽음은 삶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생의 발달단계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 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본 연구는 2010년도 동남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투고일(2011. 11. 16), 심사완료일(2011. 11. 28), 게재확정일(2011. 12. 5)

교신저자: 이정은(E-mail: lije@dongnam.ac.kr)

청년후기와 성인초기의 발달 단계에 속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자율, 내면화된 도덕성, 직업선택 등의 발달과업을 이루고자 자기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질문과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한다⁴⁾. 현대의 대학생들은 조기교육을 많이 받고 광범위한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으며, 매우 복잡하고 빨리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며 과거 대학생들에 비해 여러 모로 사상, 사고방식, 행동 등이 다르다.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주체성이 발달되어 자기 의사표현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남에게는 배타적이며 연대의식이 약하다. 그로 인해 이웃이나 절실한 친구가 적으며 더욱이 남을 공경하거나 존경하는 일이 드물다⁵⁾.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극단적인 행동양식인 '자살'이 스스럼없이 선택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 자살률을 웃돌아 회원국 중 1위이다⁶⁾.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⁷⁾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 5566명으로 33분마다 1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는 4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 청소년 중 8.8%가 자살에 대한 충동 경험이 있으며 가장 많은 이유는 성적, 진학문제(37.8%)인 것으로 나타났다⁸⁾. 또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청소년들의 자

살관련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 관련 상담 사례 건수가 55건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3년 사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¹⁰⁾에서 대학생들이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¹¹⁾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데 의료진이나 보호자들은 죽음에 직면해 있거나 죽음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차이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이를 직면하고 올바르게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¹²⁾, 삶과 죽음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학문적 대책과 제도적 장치가 더욱 요구된다¹³⁾.

응급구조과 학생은 임상실습과정을 통해 응급환자를 많이 접하게 되며 실습과정 중 죽음을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실습 기간 중 겪게 된 임종 과정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 학생도 있다. 본 연구자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자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생들의 임상실습과정 중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적절한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해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죽음과 관련된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위한 죽음관련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죽음과 관련된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응급구조과 학생의 적절한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고취시

키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더 나아가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위한 죽음관련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연구대상자의 죽음의식을 파악한다.
- 셋째, 연구대상자의 죽음의식의 하위요인을 파악한다.
- 넷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경기지역의 D 대학 응급구조과 1학년부터 3학년 학생 214명이었고, 부정확하게 기술된 13부를 제외한 201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한 후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설문 작성 중 어느 때라도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을 묻는 9문항과 죽음에 관한 의식을 묻는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죽음에 관한 의식을 묻는 측정도구는 Templer¹⁴⁾와 Boyar¹⁵⁾가 개발한 죽음의식에 대한 도구를 Thorson과 Powell¹⁶⁾이 수정해서 죽음의식 도구를 만들었고 박¹⁷⁾이 번안하여 이²⁾가 사용했던

도구를 이용하였다. 죽음에 대한 의식도구는 4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을 주었다. 역문항은 4, 10, 11, 13, 16, 17, 23, 25번 문항이며,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역산 처리하였다. 평균 점수 3.00점 이상은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이 높고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죽음 의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며 2.00~2.99점 사이는 중간수준으로, 1.99점 이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이 낮고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죽음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총 25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 하위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요인 1은 '자기지배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요인 2는 '신체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 요인 3은 '미지의 사건에 대한 불안', 요인 4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요인 5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 요인 6은 '내세의 존재여부에 대한 불안', 요인 7은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불안'이다.

이²⁾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coefficient=.84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coefficient=.866로 이²⁾의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죽음의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4) 죽음의식의 하위요인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 5) 대상자의 특성과 죽음에 대한 의식과의 차이 검정은 t-test, ANOVA로 확인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D 대학 응급구조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최소 18세부터 최고 34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0.7세(± 2.32)이었다. 학년 분포는 1학년이 68명(33.8%), 3학년이 67명(33.4%), 2학년 66명(32.8%)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125명(62.2%)으로 가진 경우보다 많았다. 생활수준은 119명(59.2%)이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대상자의 42.3%가 '대체로 건강하다'로 응답(85명)하였으며 '건강하다'라고 인지한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60.7%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대상자의 144명(71.6%)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대상자의 많은 수가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죽음경험에서 72.1%의 많은 대상자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145명)으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가족과 친척의 죽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관련 외부 실습 경험은 66.7%인 134명이 실습경험이 있으며 실습을 경험한 학생 대부분은 실습 중 죽음을 경험(125명, 93.3%)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세계에 대한 태도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멸형(50명, 24.9%)이 가장 많았으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의 불분명형(45명, 22.4%),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중의 한곳으로 가게 된다'의 천국지옥형(35명, 17.4%),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가지만 경우에 따라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의 내세지향적 환생형(27명, 13.4%) 순이었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1)

특 성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학년	1학년	68	33.8
	2학년	66	32.8
	3학년	67	33.4
종교	없음	125	62.2
	기독교	47	23.3
	불교	17	8.5
	천주교	12	6.0
생활수준	매우 좋은 편	9	4.5
	좋은 편	23	11.4
	보통	119	59.2
	좋지 않은 편	37	18.4
	매우 좋지 않은 편	13	6.5
건강수준	매우 건강	37	18.4
	대체로 건강	85	42.3
	보통	54	26.9
	건강하지 못한 편	23	11.4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2	1.0
학교생활 만족	만족	144	71.6
	불만족	57	28.4
학교생활 불만족 이유	전공이 불만족	3	1.6
	학교 불만족	9	4.5
	선후배 혹은 교우관계 불만족	17	8.5
	기타	28	13.9
가까운 사람의 죽음경험	있다	145	72.1
	없다	56	27.9
죽음경험	가족	55	37.9
	친척	59	40.7
	친구	18	12.4
	동료 및 아는 사람	13	9.0
전공관련 외부실습경험	있다	134	66.7
	없다	67	33.3
실습중 죽음 경험	있다	125	93.3
	없다	9	6.7
사후세계	내세지향적환생형	27	13.4
	천국지옥형	35	17.4
	불분명형	45	22.4
	소멸형	50	24.9
	현세지향적환생형	18	9.0
	저승형	15	7.4
	하늘나라형	8	4.0
	천당지옥연옥형	0	0
	다층이동형	3	1.5

으며 이 4가지 유형이 78.1%를 차지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천당, 지옥, 연옥 중의 한 곳으로 가게 된다’의 천당지옥연옥형은 하나도 없었고 ‘사람이 죽으면 많은 단계가 있는 사후세계로 가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의 다층이동형이 3명(1.5%)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2. 죽음의식 문항비교

연구대상자의 죽음의식을 각 문항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죽음의식은 4점 척도 기준에서

2.35점(±.48)으로 나타나 죽음에 대한 의식수준은 중간수준을 나타냈다. 평균점수가 3.00점 이상인 문항은 2문항으로 ‘오랫동안 질질 끌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3.19±.88),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내지 않는다’(3.16±.90)이었다. 평균점수가 1.99점 이하인 문항은 4개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죽은 후 내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다’(1.94±.97),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두렵다’(1.76±.86), ‘관을 보면 불안하다’(1.59±.75),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

<표 2> 대상자의 죽음의식 문항별 비교 (N=201)

문 항	M(±SD)
1.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렵다.	2.51(±1.04)
2.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두렵다.	1.76(±.86)
3. 죽은 후에 다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당황하게 한다.	2.12(±1.05)
4. 장례를 치른 후 내 몸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2.64(±1.06)
5. 관을 보면 불안하다.	1.59(±.75)
6. 죽은 후에 내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기도 싫다.	2.07(±.96)
7. 죽으면 꿈쩍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싫다.	2.18(±1.14)
8. 수술 받는다는 생각은 하기조차 싫다.	2.40(±1.01)
9.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	1.52(±.72)
10. 오랫동안 질질 끌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3.19(±.88)
11.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	2.20(±1.00)
12. 죽은 후에 아무 일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은 하기 싫다.	2.30(±1.06)
13. 내세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	2.58(±.98)
14. 죽은 후에 아무 것도 다시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은 당황스럽다.	2.23(±1.07)
15. 죽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 괴로움들이 겁난다.	2.44(±1.08)
16. 죽은 후에 새로운 삶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다.*	2.73(±1.04)
17. 죽은 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2.38(±.97)
18. 몸이 무덤 속에서 부패될 것을 생각하면 언짢다.	2.14(±1.04)
19. 죽은 후에 올 많은 것을 놓칠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린다.	2.29(±1.04)
20. 우리가 죽은 후 내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다.	1.94(±.97)
21. 다른 것들이 나를 어떻게 다루든지 마음 쓰지 않는다.*	2.93(±.92)
22. 죽음으로써 모든 것과 완전히 격리된다는 생각은 당황스럽다.	2.15(±1.01)
23.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내지 않는다.*	3.16(±.90)
24. 죽은 후에 처리되어야 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를 남겨놓겠다.	2.38(±.97)
25. 죽은 후에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경 쓰지 않는다.*	2.76(±1.04)
계	2.35(±.48)

* 역문항

게 괴롭힌다'(1.52±.72)의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19개 문항에서 평균 2.00점에서 2.99점 사이의 중간점수를 나타내었다.

3. 연구대상자의 죽음의식의 하위요인

본 연구에서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25개 문항 7개 하위요인의 누적적재량은 64.01%로 분석되었다.

요인 1은 4문항으로 '자기지배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요인(27.81%)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신체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 요인(9.19%)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미지의 사건에 대한 불안' 요인(6.57%)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요인(6.38%)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 요인(5.26%)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내세의 존재여부에 대한 불안' 요인(4.61%)로 명명하였다. 요인 7은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불안' 요인(4.16%)으로 명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죽음의식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2.96±.70), '내세의 존재여부에 대한 불안'(2.76±.57), '자기지배 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수술에 대한 두려움'(2.40±1.01), '신체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2.20±.57), '미지의 사건에 대한 불안'(2.08±.72) 순으로 나타났다.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에 대한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경험이었으며 (t=2.318, p=.021) 가까운 사람에 대한 죽음 경험 이 있는 그룹(2.39±.51)이 없는 그룹(2.22±.38)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특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본 연구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태도는 소멸형(50명, 24.9%)이 가장 많았으며 불분명형(45명, 22.4%), 천국지옥형(35명, 17.4%), 내세지향적 환생형 순이었으며 이 4가지 유형이 78.1%를 차지하였다. 한국과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²⁾ 사후세계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한국간호대학생의 경우 천국지옥형, 불분명형, 소멸형, 내세지향적환생형이 전체 대상자의 75.8%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간호대학생의 경우 불분명형, 소멸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현사회귀성환생형이 대상자의 8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김³⁾의 연구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에서 대상자의 39.8%가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32.3%가 '있을

<표 3> 대상자의 죽음의식의 하위요인 (N=201)

요 인	내 용	문 항 번 호	M(±SD)
1	자기지배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6, 7, 14, 22	2.40(±1.01)
2	신체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	3, 12, 15, 18, 19, 20	2.20(±.72)
3	미지의 사건에 대한 불안	2, 17	2.08(±.68)
4	고통에 대한 두려움	1, 4, 5, 9, 11, 25	2.20(±.57)
5	수술에 대한 두려움	8	2.40(±1.01)
6	내세의 존재여부에 대한 불안	13, 21, 23, 24	2.76(±.57)
7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	10, 16	2.96(±.70)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

(N=201)

특 성	구 분	N(%)	M(±SD)	t/F	p
학년	1학년	68(33.8)	2.29(±.47)	.740	.479
	2학년	66(32.8)	2.38(±.51)		
	3학년	67(33.3)	2.37(±.45)		
종교	없음	125(62.2)	2.35(±.46)	.319	.750
	있음	76(37.8)	2.33(±.51)		
생활수준	상	32(15.9)	2.36(±.29)	.094	.910
	중	119(59.2)	2.33(±.48)		
	하	50(24.9)	2.36(±.56)		
건강수준	상	122(60.6)	2.32(±.47)	.538	.585
	중	54(26.9)	2.40(±.46)		
	하	25(12.5)	2.38(±.56)		
학교생활 만족	만족	144(71.6)	2.36(±.50)	.568	.571
	불만족	57(28.4)	2.32(±.44)		
가까운 사람의 죽음경험	있다	145(72.1)	2.39(±.51)	2.318	.021
	없다	56(27.9)	2.22(±.38)		
전공관련 외부실습경험	있다	134(66.7)	2.37(±.48)	1.036	.302
	없다	67(33.3)	2.30(±.47)		
사후세계	내세지향적환생형	27(13.4)	2.38(±.56)	1.7306	.104
	천국지옥형	35(17.4)	2.27(±.47)		
	불분명형	45(22.4)	2.42(±.42)		
	소멸형	50(24.9)	2.23(±.52)		
	현세지향적환생형	18(9.0)	2.34(±.42)		
	저승형	15(7.5)	2.67(±.39)		
	하늘나라형	8(4.0)	2.27(±.48)		
	다층이동형	3(1.5)	2.40(±.10)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으며 '꼭 있다고 믿는다'는 24.7%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사후세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³⁾의 경우 대부분 40~60대의 연령 군에 해당하여 본 연구결과의 대상자와는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결과와 이²⁾의 결과에서 대상자는 젊은이로서 현실세계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태도가 소멸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죽음의식 점수는 2.35점(±.48)를 나타내 죽음에 대한 의식수준은 중간수준이라고 평가되며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

움이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²⁾의 연구에서도 2.36점(±.46)로 죽음에 대한 의식수준이 중간정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노¹⁰⁾의 연구에서는 평균 점수가 2.12(±1.01)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낮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¹⁰⁾에서 대학생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꿈하는 경우가 47.0%, 드물게 하는 경우가 33.2%, 자주하는 경우가 10.2%,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9.6%로 나타나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는 질문에 대상자의 53.5%가

‘두렵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의료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안¹¹⁾의 연구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젊은 대학생들은 죽음이 당장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다 보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의료진이나 보호자들은 죽음에 직면해 있거나 죽음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차이일 것이다.

죽음의식을 각 문항별로 확인해 보면 평균점수가 3.00점 이상인 문항은 2문항으로 ‘오랫동안 질질 끌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3.19점),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내지 않는다’(3.16점)이었다. 평균점수가 1.99점 이하인 문항은 4개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죽은 후 내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지 걱정이다’(1.94점),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두렵다’(1.79점), ‘관을 보면 불안하다’(1.59점),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1.52점)의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19개 문항에서 평균 2.00점에서 2.99점 사이의 중간점수를 나타내었다. 한국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²⁾에서 평균점수가 3.00이상인 문항이 두 개였으며 가장 높은 문항은 역문항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내지 않는다’ 3.41점, ‘오랫동안 질질 끌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3.21점이었다. 백¹⁸⁾ 등의 연구에서 이 두 문항(3.23점, 3.17점)이 1, 2위를 나타냈으며 노¹⁰⁾의 연구에서 2.80점, 2.95점으로 2위와 1위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²⁾의 연구결과에서 평균점수 1.99점 이하인 문항이 6개 나타났는데, ‘우리가 죽은 후 내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다’(1.94점), ‘몸이 무덤 속에서 부패될 것을 생각하면 언짢다’(1.94점), ‘죽으면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싫다’(1.85점), ‘관을 보면 불안하다’(1.79점),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괴롭다’(1.67점),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1.63점)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1.99점 이하인 4개 문항이 모두 이²⁾의 연구결과에 포함되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²⁾의 결과에서 낮게 나온 ‘몸이 무덤 속에서 부패될 것을 생각하면 언짢다’(2.14점)와 ‘죽으면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이 싫다’(2.18점)는 본 연구결과는 중간 정도의 태도를 나타내었다. 노¹⁰⁾의 연구에서도 ‘오랫동안 질질 끌다 죽는 것은 생각을 하면 두렵다’가 평균 2.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다’가 2.80점으로 그 다음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로 보아서는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닦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의 죽은 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에 대한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경험이었으며($t=2.318, p=.021$) 가까운 사람에 대한 죽음 경험이 있는 그룹($2.39 \pm .51$)이 없는 그룹($2.22 \pm .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¹⁹⁾의 연구에서 ‘자신의 건강이나 신체적 조건(52.4%), ‘가족의 죽음’(32.3%), ‘종교교육’(21.3%)로 조사되었고, 김²⁰⁾의 연구에서는 ‘가족, 가까운 친구의 죽음’(53.0%), ‘자신의 건강이나 신체적 조건’(11.3%)로 조사되었다. 김³⁾의 연구에서 죽음의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가족의 죽음이 30.1%, 자신의 건강이나 신체적 조건 17.2%, 장례식 참석 15.1% 등으로 나타나 죽음의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의 죽음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종교 특성이 죽음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³⁾의 연구에서 종교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많이 영향을 미친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Thorson과 Powell¹⁴⁾은 종교성이 죽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지만 노¹⁰⁾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³⁾에서는 종교가 죽음의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²⁾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없는 군에서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종교에 따른 죽음관련 태도가 유의

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자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자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임상 실습과정 중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죽음의식을 알아보고 그에 적절한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고취시키는 교육에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죽음과 관련된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위한 죽음관련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의 죽음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경기지역의 D 대학 응급구조과 1학년부터 3학년 학생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정확하게 기술된 13부를 제외한 201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을 묻는 9문항과 죽음에 관한 의식을 묻는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점수 3.00이상은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이 높고 죽음에 대해 부정적이며 죽음 의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며 2.00~2.99점 사이는 중간수준으로, 1.99점 이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이 낮고 죽음에 대해 긍정적이며 죽음의식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coefficient=.866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사후세계에 대한 태도는 소멸형(50

명, 24.9%)이 가장 많았으며 불분명형(45명, 22.4%), 천국지옥형(35명, 17.4%), 내세지향적 환생형(27명, 13.4%) 순이었으며 이 4가지 유형이 78.1%를 차지하였다. 천당지옥연옥형은 하나도 없었고 다층이동형이 3명(1.5%)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2. 죽음의식의 평균점수가 3.00점 이상인 문항은 2문항으로 '오랫동안 질질 끌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3.19점),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도 특별히 겁내지 않는다'(3.16점) 이었다. 평균점수가 1.99점 이하인 문항은 4개로, '우리가 죽은 후 내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걱정이다'(1.94점), '내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마음이 두렵다'(1.79점)', '관을 보면 불안하다'(1.59점), '사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크게 괴롭힌다'(1.52점)의 순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 문항에서 평균 2.00점에서 2.99점 사이의 중간점수를 나타내었다.
3. 대상자의 죽음의식 점수는 2.35점(± 0.48)을 나타내 죽음에 대한 의식수준은 중간수준이라고 평가되며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이 보통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에 대한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경험이었으며($t=2.318, p=.021$) 가까운 사람에 대한 죽음 경험이 있는 그룹($2.39 \pm .51$)이 없는 그룹($2.22 \pm .38$)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죽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응급구조과 학생의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를 고취하기 위하여 죽음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및 실무에의 적용이 필요하다.

- 3) 응급구조과 학생의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 고취를 위한 죽음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죽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41048>
- 이진숙. 한국과 중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의식.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미애. 요양보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죽음준비 교육.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계화, 이현지, 이윤주.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의 죽음태도 유형-Q 방법론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2005;35(5):829-841.
- 김재은. 우리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교육과학사. 1996. 360-378.
- 서울시 작년 한해 2,668명 자살. 한강타임즈 2011년 11월 1일자.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73>
- KOSIS 국가통계포털. 2011년 청소년 통계-6.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 <http://kosis.kr>
- 자살 예방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뭉쳤다. 2011년 11월 22일자. 메디파나 뉴스 <http://medipana.com/news>
- 자살상담 청소년 해마다 늘어... 전년 대비 2배 증가. 메디컬투데이 2011년 8월 24일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3599>
- 노순희.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죽음의식과 태도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 부산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안경아. 농촌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경혜, 김경덕, 변혜선, 정복례.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 자아 존중감 및 죽음에 대한 태도. 중앙간호학회지 2010;10(1): 1-9.
- 조계화, 이현지, 이윤주.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 개발과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2007;37(4): 442-452.
- Templer DI.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death anxiety scale. J Gen Psychol 1970;82:165-177.
- Boyar JJ. The construction and partial validation of a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the fear of dea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1964.
- Thorson JA, Powell FC.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death. J Clin Psychol 1988;44(5): 691-701.
- 박석춘. 죽음과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태도조사연구. 한국간호과학회지 1992;22(1):68-80.
- 백설향, 이미애, 한성열.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의식변화 연구-호스피스 간호학습 전후 비교. 기본간호학회지 2001;8:357-363.
- 이인례.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귀분.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Abstract =

The Death Orientation of Paramedic Student

Jung-Eun Lee* · Bong-Yeun Koh*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death in paramedic stud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develop education program for death orientation, paramedic students education and practice.

Methods : A total of 201 paramedic student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The perception of death was examined using questionnaires designed for examining Death Orientatio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8.0 statistics program for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cronbach alpha coefficient, factor analysis. cronbach alpha coefficient was .866.

Results : The paramedic students' got a score of 2.35(\pm .48) on the Orientation on death as average. The reason is that death is not yet pressing them at all and ahead of their lives they have many days to live. With respect to the Death Orient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as found in experience of death($t=2.318$, $p=.021$). Group of death experience was higher than group of no death experience. In view of the attitude on afterlife, students responded no afterlife(24.9%), unknown after death(22.4%).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aramedic curriculum should include education program on death and improve quality of prehospital care.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to establish death education for paramedic.

Key Words : death orientation, paramedic student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nam Health College

Correspondence to: Jung-Eun Lee (E-mail: lije@dongnam.ac.kr)